

대원군에 맞선 선비의 재치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아버지인 대원군의 기세와 위풍은 하늘을 찌를 듯이 당당했다.

대원군은 난초 그리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저에서 혼자 난초를 그리고 있을 때에 시골의 한 선비가 대원군을 찾아왔다.

선비는 작은 벼슬이라도 한 자리 얻어 볼까 하여 대원군의 사저를 찾아와 방바닥에 엎드리면서 조용히 큰절을 올렸다.

그러나 대원군은 여전히 난초만 그리면서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선비는 자기가 절한 것을 대원군이 못 본 줄로만 알고 다시 일어나 엎드리면서 큰절을 또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대원군이 갑자기 벽력같은 소리를 질렀다.

“너 이 고안 놈 같으니, 산 사람에게 재배를 하다니!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문상을 하는 거냐?”

이때 깜짝 놀란 선비 머리에 번개 같이 떠오른 재치!

“아니올시다. 먼저의 절은 처음 뵈는다는 절이옵고, 나중의 절은 물러가겠다는 하직 인사의 절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선비의 임기응변술! 그 재치와 유머에 감탄한 대원군의 노여움은 삽시간에 풀리고, 오히려 선비에게 그 자리에서 영광 고을의 군수 자리를 주어 내려 보냈다 한다.